

# OLED 시장 2009년 3억대 돌파

## 디스플레이서치, 2004년의 10배 수준 ... 2/4분기 삼성SDI 32% 점유

차세대 디스플레이 산업으로 떠오르는 OLED(유기발광 다이오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시장조사기관인 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 OLED 시장은 향후 5년 안에 현재보다 1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관측됐다.

디스플레이서치는 OLED 시장규모가 2005년 5176만대로 2004년 3083만대에 비해 68% 성장하는데 이어 2006년 6881만대, 2007년 1억2422만대로 1억대 고지를 돌파한 뒤 2008년 2억5112만대, 2009년 3억2262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2009년의 시장규모는 2004년 대비 10배 넘게 확대되는 것이다.

OLED는 화질의 반응속도가 LCD에 비해 1000배 이상 빠르고 두께와 무게도 LCD의 3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대형화되면 PDP, LCD의 자리를 충분히 위협할 것으로 관측된다.

더군다나 OLED 시장은 아직 수동형(PM) 위주로 형성돼 있으나 2006년부터 능동형(AM) 시장도 본격적으로 열릴 것으로 기대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한편, 2005년 2/4분기 OLED 세계 판매량이 전년동기대비 80% 이상 성장했다.

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 2/4분기 전 세계 OLED 출하량은 1420만대, 매출은 1억2480만달러로 82%, 18% 증가했다.

MP3 플레이어를 비롯해 휴대폰 메인창, 자동차 계기판 판매 등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매출순위는 삼성SDI가 3720만달러로 1/4분기 대비 32%, 전년동기대비 15% 증가하며 1위를 고수했고, 타이완 Light Display가 2810만달러, Pioneer 1960만달러, 유니비전 1410만달러, LG전자 650만달러로 2-5위를 차지했다.

삼성SDI는 출하량도 380만대 수준으로 매출과 출하량에서 모두 1위를 유지했고, LG전자는 출하량 74만대에 매출액이 1/4분기 대비 111%, 전년동기대비 92% 증가함으로써 5위권 가운데 가장 큰 성장세를 기록했다.

<화학저널 2005/09/20>